

대포 장착·완벽 수비...“나, 강정호”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4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토론토와의 원정 시범경기 3회 2사에서 마르코 에스트라다를 상대로 솔로포를 쏘아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범경기 토론토전서 첫 홈런 볼넷 골라내며 선구안 과시 메이저리그 ‘화끈 신고식’

광주일보 출신의 ‘한국산 거포’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프로야구 실전 데뷔 경기에서 대포를 터뜨리고 화끈한 신고식을 펼쳤다.

강정호는 4일 미국 플로리다 주 터네딘의 플로리다 오토 익스체인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원정 시범경기에서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0으로 앞선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시원한 솔로 아치를 그렸다.

강정호에게 홈런을 맞은 투수는 지난해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7승 6패, 평균자책점 4.36을 남기는 등 메이저리그 통산 23승 26패,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한 우완 마르코 에스트라다다.

강정호는 조구 빠른 볼을 받아쳐 1루쪽으로 파울을 날리고 나서 곧바로 2구째 빠른 볼이 가운데 높

게 들어오자 거침없이 방망이를 들렸다. 방망이를 떠난 타구는 우중간 방향으로 총알처럼 쭉쭉 뻗어가 펜스 뒤 야자수 쪽으로 사라졌다. 3루 쪽을 가득 메운 파이리츠 팬들의 환호 속에 베이스를 돈 강정호는 벤치에 들어올 때 피츠버그 선수들이 하는 ‘해적표’ 홈런 세리머니(양쪽 엄지 손가락을 위·아래로 붙이는 동작)를 선보였다.

전날 정백전을 1타수 무안타로 마쳤지만 실전 감각을 회복한 강정호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토론토 선발 에런 산체스의 바깥쪽 낮은 직구를 끌어당겼으나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그러나 강정호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장쾌한 홈런을 날려 해적 팬들에게 울 시즌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듬뿍 안겼다.

강정호는 7-3으로 앞선 5회 1사 2루의 세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걸어나갔다. 볼 카운트 1볼 2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조건에서 볼 3개를 침착하게 얻어냈다. 2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을 올린 강정호는 8-4로 앞선 6회 말 수비부터 교체됐다.

강정호는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클린트 허들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았다. 2회 아웃 카운트 3개를 모두 땅볼로 건어내는 등 안정감 넘치는 포구, 정확한 송구 실력을 뽐냈다.

안타 25개(피츠버그 14개·토론토 11개)를 주고받은 난타전 끝에 피츠버그가 8-7로 이겼다.

강정호는 “홈런을 칠 때 제대로 방망이에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느낌이었다”며 “빠른 볼에 차차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 투수가 빠르게 승부를 걸어오는 만큼 나 또한 일찍 대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월 4일까지 이어지는 32차례 시범경기의 첫 막



강정호 첫 홈런 희생양 마르코 에스트라다.

을 화려하게 열어젖힌 강정호는 4일에는 토론토와의 2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전력누수, 팀워크로 돌파

김선빈·안치홍 동반 입대·허약 불펜, 시즌 전망 불투명
선후배 포지션 바뀌며 노하우 전수...‘함께’로 전력 ‘업’



외야 수비 훈련을 끝낸 KIA 나지완(오른쪽부터), 김원섭, 김다원, 신종길이 그라운드에서 내야진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는 매년 빠지지 않던 4강 후보였지만 올 시즌 최하위 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수·주의 핵심 멤버였던 김선빈·안치홍 ‘키스톤 콤비’의 동반 입대 속, 마무리도 확정되지 않은 허약한 불펜이 올 시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KIA 선수들은 ‘야구공은 둥글다’고 말한다. 9명이 힘을 모쳐서 하는 경기인 만큼 6위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꼽는 보이지 않는 전력은 팀워크다.

4일 종료된 KIA의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은 팀워크를 무기로 키웠다. 코칭스태프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주장 이범호와 베테랑 김주찬이 앞장 서서 선배들과 후배를 아우르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신진급 선수들이 주를 이뤘던 연습경기에서 베테랑들은 응원단이 되어 덕아웃을 수성했다. 파이팅을 외치는 김주찬의 목소리는 9회가 넘어도 계속 들렸다.

훈련 시간에도 이들은 하나를 강조했다. 선수단 모두가 함께 그라운드에 올라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라커룸으로 향했다.

이번 캠프에는 다른 선수들보다 30분 정도 일찍 훈련을 시작하는 엑스트라조가 없었다. 선수단 모두가 함께 모여 몸을 풀고 교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야발전 시간과 엑스트라 훈련은 있었지만 시작은 언제나 함께였다.

수비 훈련도 함께였다. 내·외야수, 투수들 각 포지션별로 훈련이 끝나면 각자 라커룸으로 향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번 캠프에서 KIA 선수들은 동료의 훈련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다.

야수진들의 수비 훈련 시간이면 3루 쪽에 정렬한 투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좋은 수비가 나오면 박수를 보내면서 훈련을 지켜냈다. 외야수들은 자신의 순서가 끝나는 대로 투수들의

대열에 동참해 내야 수비 훈련을 살펴봤다. 이들은 내야 광고가 끝난 뒤에야 함께 박수를 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움직였다. 선수단 전원이 몸과 눈으로 수비 훈련을 하는 풍경은 일본 야구팬들에게도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관중석을 가득 채웠던 히로시마 팬들은 KIA의 단체 수비훈련이 끝나자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선수들에게는 단순히 그라운드에 서있는 것을 넘어 ‘함께’라는 마음을 더하고,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라운드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신인 황대인과 이범호·김주찬 등은 수비 훈련 도중 포수 마스크를 쓰기도 했다. 다른 포지션을 경험하면서 동료의 고충을 이해하고 팀워크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었다.

팀워크를 더한 KIA가 선수들의 바람과 자신감처럼 2015시즌 신바람 행진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끝> wool@kwangju.co.kr